

2023

# 추석 가정예배

예배초청 \_\_\_\_\_ 인도자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 송 \_\_\_\_\_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_\_\_\_\_ 다 같이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 도 \_\_\_\_\_ 맡은 이

성경봉독 \_\_\_\_\_ 시편 23편 \_\_\_\_\_ 인도자

1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설 교 \_\_\_\_\_ 푸른 풀밭, 쉼 만한 물가 \_\_\_\_\_ 인도자

찬 송 \_\_\_\_\_ 좋으신 하나님 \_\_\_\_\_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기도 \_\_\_\_\_ 다 같이



## 푸른 풀밭, 실 만한 물가

본문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어다 주는 은혜의 시입니다. 성경을 접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시가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구조적 단순함과 표현의 명료함에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공감하기 쉬운 언어로 이처럼 높은 경지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인은 ‘목자’라는 은유로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목자의 이미지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보호와 인도’입니다. 거친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칭했던 이유는 언제나 부족함 없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건강도 여의치 않고, 시간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은 적어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고백은 그저 문학적 수사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시인이 소유한 신앙의 경지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풀밭과 실 만한 물가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풀밭과 물가는 한적하고 근사한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인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어둡고 그늘진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원수들의 위협에 언제라도 노출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시인은 6절에서 푸른 풀밭과 실 만한 물가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새번역] 다시 말해, 푸른 풀밭과 실 만한 물가는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라는 말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아무리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은 푸른 풀밭이요. 실 만한 물가입니다. 결핍의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푸른 풀밭, 실 만한 물가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